

박영숙씨



84.10.

『오늘 뿐만 아니라 늘 생 각 해 온 것이라면 생 명문화창조운동이라든지 평화에 대한 관심입니다.』

따라서 통일에 절전도 퍼 자연스런거지요. 아직은 통 일방안을 특 터놓고 이 야기할 수 있는 분위 기

“여성인 화해자로 통일접근 가능해여”

들이 평화운동과 통일에 익숙해질 단계이다. 분단 상황하에서 참다 운 평화는 있을 수 없 다고 말하는 그는 『언젠 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 고, 될 것 입니다. 그 길 이 우리가 살길이니깐요.』

군이 통일의 절근에 여 성이 감당할 수 있을 것 은 사랑과 정의 여성이 단절되고 이질화된 정보, 로 연결, 잠재력을 일깨

들인 것』이라고 덧붙인다. 진정한 평신도운동의 출 발은 교회여성운동이어야 할 것이라는 그는 『교회 여성의 잠재력은 연대의 힘을 심는 데서 비롯될 것 같습니다. 의식이 먼저나 아니면 체현이 우선이나 는 순위가 뒤따라긴 하 나 문제해 부딪치거나 현 장의 산 결함이 의식화 안 법무박사와 톨메이트.

게됐다고. 중년의 나이에 또 불루 하고 그의 처치마 옷매 무새는 눈에 설치않다. 오히려 소박한 멋을 내 내 남기고 있다.

젊은이 못지않은 탄성 과 지극한 결연, 표용이 조화를 이루며 석류알 처 럼 알알이 박혀있다.

지나해 복직한 한신대 안 법무박사와 톨메이트.

는 아니나 점차 열리고 있는 중의 정세를 주 변정황을 미루어보면 통 일은 시간문제인 것 같습 니다. 주변 상황에 영향 을 많이 받는 것이 한 우동에 있어서 NCC의 국이니까요』 그의 공감대 짚어주는 NCC의 WCA, 백주년기념여성사 업협회의 회원 교단과 여성 단체로 가지를 치며 뿌 리를 내릴 수 많은 여성 존과 주인의식 회복이 필

은 것으로 보입니다』 말하 자면 긴장관계 발생시 그 관계지장 해소과정에서 주 체적으로 여성적인 마찰을 유도하는데 여성의 역할 은 지대하다고 주장한다.

최근 여대생추행사건대 책합의회에 간여하면서 자 기희생적으로 일하는 젊은 이들 모습을 보고 작은 세 수를 발견, 특히 젊은 세 대에 두꺼운 기대를 갖